

새해아침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동화

신년특집

한 그릇의 죽 공양



지성스님
(은영유치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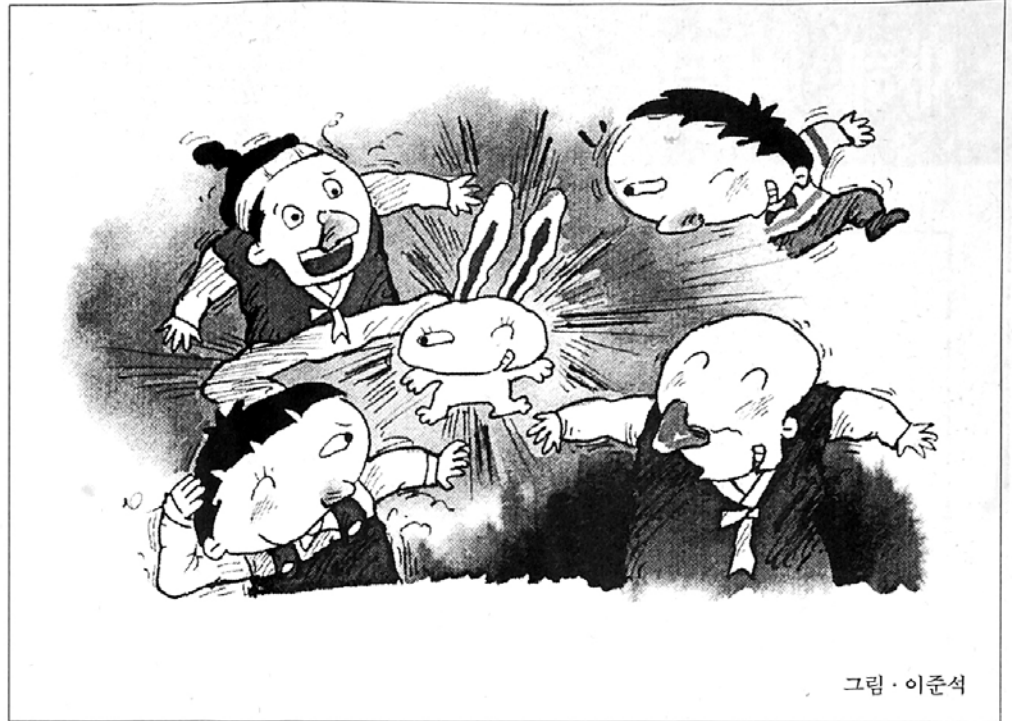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이건 내꺼니까 선우 넌 만지마" 초등학교 3학년인 선재는 선물로 받은 장난감 자동차를 동생 선우가 가지고 노는게 못마땅해 이렇게 고함 질렀습니다.

그러자 동생 선우는 "오야~!"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선재에게 동생과 사이좋게 같이 가지고 놀라고 타일렀지만 선재는 고개를 꺾고 돌리고 맙니다. 울다지친 선우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동생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선재는 장난감자동차를 옷장속에 숨겨놓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선재는 욕심이 많습니다. 과자를 먹어도 누가 훔쳐 먹을까봐 숨겨 놓고 먹고, 길을 가다가 거지가 발발 땀고 있

"엄마 아빠, 어린이보호 다녀오겠습니다" 씩씩하게 인사를 한 선재와 선우는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처님 앞에 공손히 삼배를 드리고는 동생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도 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 여러분! 한주일 동안 부처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언니 동생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스님이 묻자 "네에!" 법당에 모인 어린이들이 큰소리로 대답합니다. 어제 저녁일을 잊은 듯 선재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해 첫 법회지요. 오늘도 스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런 농부의 마음을 꿰뚫었는지 스님이 농부의 뒤를 따라 집앞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본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쑤어서 스님에게 공양하였습니다. 공양을 받은 스님은 "공양은 고맙게 받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죽을 다 먹으면 당신은 굶을 터이니 이것을 받아드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농부는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안먹으면 내일 먹으면 됩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다 잡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죽을 다 먹고나서 농부의 정성에 감사해 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소망을 말해 보시오. 변변치 못하나마 그 소망을 성취해 드릴터이니..."

가난한 농부가 발우가 빈 스님을 보고 죽을 정성껏 끓여 공양했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큰 황금을 발견하고...

"늘 보시하는 마음을... 그것은 부처님 마음과 통합니다"

어도 못본척 그냥 지나갑니다. 또 동생 선우는 법회가 끝나면 용돈 받은 것을 쪼개 고사리 두손으로 정성드려 보시함에 넣지만 선재는 한 번도 보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뜻한 겨울 햇살이 선재의 방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형! 어린이보호 가자. 어서 일어나, 어서" 먼저 일어난 동생 선우가 어서 빨리 절에 가자고 형 선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재는 겨우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하고는 절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인도의 어느 곳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농부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내다팔아 하루 하루 끼니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던 길에 농부는 발우를 든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발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본 농부는 몹시 마음이 인되어 "만일 나와 우리집에 함께 가면 조금의 공양이라도 드릴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상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지도 많은 재물을 얻어 가난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농부의 말은 들은 스님은 "그 송고한 소망이 이뤄질 것을 기약합니다"라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산에 또다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농부는 나무를 베다가 토끼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토끼를 잡으려고 가보니 토끼가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황금을 집으로 가져와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스님과 약속한대로 남을 돕는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이보호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주위에 어렵고 불우한 이웃이 많은데도 도를 생각보다는 엄마 아빠에게 더 안 사준다고 투덜거립니다. 마음만 내면 남을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생활할 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눠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

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형이나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 보세요. 남을 생각해 양보하고 욕심을 안부리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도 통하니까요. 아시겠지요"

스님의 법문을 들은 선재는 지난 밤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재는 수줍은 듯 동생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형이 어제 미안했어. 그 장난감자동차 너 줄게"

"정말이야 선재형!" 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응, 그래. 아까 스님이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눠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하셨잖아. 우리 집에 열린 가서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재미있게 놀자" 선재의 말에 선우도 빙그레 미소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선재는 '앞으로는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만화 100부작 새해공감

말라버린 소젖

새해에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자신이 기르는 소의 젖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려 했는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모두 불러 뽐내며 대접하고 싶었다!

가만!

명칭이 같은 녀석!

젖을 안한다고 소배에 모여

안됐다 육만 먹고

이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 한달쯤 그냥 두면 이 뱃속에 모두 모일텐데 굳이 잘것 없잖아

젖이 되도록 많이 모여야 하나니 너도 당분간 어미 곁에 가지마라

한달 후 농부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젖은 말라 없어져 버렸다

영! 이거 어찌된거야?

내 재물이 많이 쌓이면 한꺼번에 보시 하리라! 생각한다

볼수록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몇분 낸다고 무슨 큰 도움 되겠어요?

하긴! 더 벌어서 큰돈 써야지 얼굴도 서고

그러나 재물은 모으기도 전에 재난으로 모두 잃거나, 갑자기 생을 마치는 때도 있다

내 평생 보시 한번 못하고 마음에만 두고 가는구나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지 못하면 이 또한 소젖을 한꺼번에 얻으려다 모두 잃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진리의 섬에서 파도 소리를 관하며

3박4일(목~일)

승광사 "승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차수	기간	대상	연령	모집인원
5차	97년1월 9일 ~ 1월12일	일반인	20~55세	30명
7차	97년1월16일 ~ 1월19일	일반인	20~55세	30명
8차	97년1월23일 ~ 1월26일	일반인	20~55세	30명
9차	97년1월30일 ~ 2월 2일	일반인	20~55세	30명

※ 우편이나 전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 5만원
-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일선)
- 교통편
서울·순천·녹동] 금진(배로20거리)
부산·순천·녹동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74 승광암
암주: 일선

전화 : 0666)843-8488
팩스 : 0666)842-7307

改 金

사람도 계절이 바뀔때 마다 갈아입는 옷, 자비로우신 부처님은 더욱더 예의 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옷을 장엄하게 입혀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사찰로 직접 방문하여 개금도 가능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전문품목 : ◻천불 ◻목불 ◻동불 ◻특수불

藝 腥 佛 美 院

서울시 성북구 동성동4가 9번지 예성B/D 301호
TEL:(02)925-5070~1(代)
FAX:(02)925-3991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 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시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백의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루사파이어 보석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회(의정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